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The Locus of Control,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etiree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

지연경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조교수 조병은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 Chee, Yeon K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Assistant Prof. : Cho, Byung Eun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문제
IV. 연구 방법

V. 결과 및 해석
VI.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path model in which shows how the background variables, retirement - related variables, and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influence life satisfaction among retirees.

Data from a probability sample of retirees who are not employed as a full - time (n of retirees = 261) are used.

The social stress model, developed by House (1974) and George (1980), presented and tested i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erspective of the retirees.

The major findings are :

1. The retirees perceive relatively high levels of stress in retirement.
2. Levels of living standard, health status, and locus of control are significant factors in differentiating the degrees of perceived stress i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3. Concerning the retirement variables, the previous job satisfaction, plans and

preparatins for leisure activities and financial arrangement contribute to differentiate the degrees of perceived stress i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4. While health status, locus of control, and the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influence directly on life satisfaction, age, education, income, and activity level influence indirectly through the retirement - related variables and the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on life satisfaction.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upon life satisfaction receives strong support.

I. 서 론

인간의 노화는 누구나 겪게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윤종주, 1988).

1960년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정년퇴직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해서 은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55세의 퇴직이라는 조기정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민재성, 1982) 점점 연장되고 있는 노인의 평균수명(여자 74세, 남자 67세)과 비교해 볼 때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의 미흡한 실정으로 노인인구층은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게 된다.

한편, 이제까지 노인의 부양을 주로 담당해 오던 가족이 핵가족화와 핵가족 이념으로 변화하면서 노후의 부양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 연장된 노년기 생활에 대해서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지금세대의 노인들에게 은퇴후 생활 적응의 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남자노인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직업 또는 일이란 중요한 소득원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자아정체감을 유지시키고, 가정 및 사회집단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따라서 은퇴는 남자노인의 노년기 적응에 있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이 은퇴를 경험한 후 노후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에 따른 결과로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지어 매우 중요하며 서구사회에서

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계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결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은퇴한 노인들은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년이 빠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 스스로 은퇴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을 젊은 시절부터 세우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연금제도 등의 노인 복지정책의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후의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tchley, 1977; Stevens-Long, 1984).

은퇴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노후생활에 적응하는가 하는것은 은퇴이전에 개인이 갖고 있던 조건이나 환경 및 준비에 의해서 은퇴를 자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Maddox, 1970). 다시 말하면, 은퇴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배경, 예를들어 교육정도, 수입, 건강, 사회활동 수준, 성격, 그리고 은퇴에 대한 준비, 태도등에 따라서 은퇴를 스트레스적인 사건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며, 그 정도에 따라 은퇴 후 적응의 결과인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남자노인들은 그들의 나이로 볼 때 대체로 전통적인 가족적 노후 보장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 은퇴전의 준비나 은퇴후의 생활에 대하여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고 대부분 55세라는 이른나이에 은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므로 은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매우 높을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55-60세의 나이는 가족생활 주기상, 자녀의 교육비, 결혼 등으로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해당하므로 은퇴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은퇴에 대한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은퇴와 관련된 국내의 문헌은 현재까지 은퇴제도의 형태, 직업 및 성별에 따른 정년제도의 적용등을 위주한 실태의 분석(김성순, 1984; 강영애, 1987 등)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은퇴를 스트레스의 개념으로 파악한 연구나, 그것을 매개로 하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것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심리적인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향상에 목적을 두고,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 후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인들과, 은퇴와 관련된 변인들, 그리고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정도 및 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인과모형으로 구성하여 검증함으로써 조기정년제 재고등 노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A. 은 퇴

1. 은퇴의 개념

은퇴제도는 이전의 직업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은 극히 최근의 것이다. 즉, 은퇴는 산업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최신덕, 김종숙, 1983). 장인협과 최성재(1987)는 은퇴를 유급의 직업적인 지위와 역할에서 물러서는 것으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은퇴한 사람은 퇴직 연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5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지난 1년간 전업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은퇴를 직업적인 경력의 중간으로 제한되며, 그 시점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생활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된다.

은퇴란 사건, 역할, 과정, 모두를 포함하기도 하는데(George, 1980)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한 사건, 또는 다른 과정들과 병행하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Taylor, 1972).

은퇴가 사건으로 간주될 때, 은퇴는 직업생활의 중단을 뜻하며 Atchley(1977)에 의하면 사건으로서의 은퇴에 관한 상징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는 노년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지는 않으나, 사건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두가지의 중요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고 한다. 첫째, 은퇴한 사람중에서는 은퇴 사건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들면 원래 고용되지 않았던 사람은 공식적인 은퇴 사건없이 은퇴된다는 것이다. 둘째, 은퇴라는 사건이 은퇴가 개개인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많은 것들, 즉 수입의 획득이나, 직업을 통해서 얻는 지위, 사회적 관계망, 자아정체감 및 의미있는 경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퇴를 역할이란 관점에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은퇴한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는 편이나, 역할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불일치하고 있다(Atchley, 1977). 은퇴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되므로 “역할없는 역할(Roleless role)”로 묘사되고(Cowgill, 1986) 행동지침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역할로서의 은퇴는 은퇴자의 행동상의 기대, 즉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은퇴자의 권리는 (1) 직업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 없이도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것과, (2) 개인적 시간의 자발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은퇴자의 책임은 (1) 도움없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 (2) 적절한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George, 1980).

마지막으로 은퇴를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관찰하면 직업적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드는 과정으로서(George, 1980), 기대했던 새로운 지위와 역할에로의 전이과정이 되며 그에 따른 종전 역할이 아닌 새로운 역할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Beaver(1983)는 이러한 전이과정이 어느정도 성공적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특성과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지위와 역할의 성격에 크게 의존한다고 한다(장인협, 최성재, 1987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는 개인의 생활주기내에서 과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역할전환과 관련하여 중년기로부터 노년기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겪게되는 것이다.

결국, 이에 따른 은퇴자의 역할이란 노년기에 접어들어 일관되지 못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능력에 대하여 적응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란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은퇴후의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본다.

2. 은퇴후의 적응에 대한 이론

노년학에서 첫째로 명시된 선견적인 모델은 Cumming과 Henry(1961)에 의한 사회유리이론이다.

사회유리이론은, 인간의 노화는 생물학적 쇠퇴가 진행되는 결과로써 자아투입(Ego investment)의 양이 감소하고 사회의 여러 역할들부터 이탈하며 심리적인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러한 현상은 노인과 사회에 모두 기능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Dowd, 1975). 이에 대비한 방법은 점진적이어야 하며 사회와 개인이 서로 만족하는 시기에 사회적인 유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Cumming & Henry, 1961).

그러나, 사회유리이론은 과연 은퇴가 불가피한 것이며 노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유리이론의 단점은 노인의 개성과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데에 있다. Streib와 Schneider(1971)는 은퇴의 현실에 더 직접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유리이론을 재정의 하였다. 재정의한 차별적 이탈(Differential Disengagement) 이론에서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유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고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노동을 제거함으로써 삶의 다른 영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인을 자유롭게 해 준다는 것이다(Troll, Miller & Archley, 1979).

앞에서 논의한 사회유리이론과는 다른 입장으로 활동이론이 있다. Havighurst와 그의 동료들(1968)은 노인은 노화로 인하여 생리적인 변화를 경험하나 심리적, 사회적 욕구는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안정되게 유지되므로 노인들은 자신들의 전성기였던 중

년기의 활동이나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며 그것이 가능하면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유지될 때 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은퇴 후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 은퇴자는 직업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에 대처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여 노후에도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동이론은 소수 은퇴자의 행동유형에만 적용 가능한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유리이론과 활동이론의 단점을 보완한 이론이 지속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이론은, 개인은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는 것보다 이미 수행해 왔던 역할에서 보내는 시간을 증가 시킴으로써 은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가능한한 은퇴이전의 생활과 같은 유형을 원하므로 개인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탈 할 수가 있다. 즉,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일생을 통한 환경과 자신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은퇴에 대한 적응유형과 관련된 성격 특성을 제시한 연구로서 Reichard, Livson, 그리고 Peterson(1962)은 다섯가지의 유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일상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성숙형(mature) 2)일생 지냈던 무거운 책임에서 해방된 시기로 은퇴기를 받아들이는 은둔형(rocking chair) 3)늙어가는데 대한 불안의 방ize책으로 계속적인 사회활동 및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무장형(armored styles) 4)자신이 늙어 가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젊은 시절의 인생이 시대상황, 경제사정, 부모, 형제, 자녀 등에 의해서 실패하였다고 비통해 하는 분노형(angry men) 5)자신의 무능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잘것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비판하여 젊은 시절을 후회하는 자학형(self-haters) 등이 그것이다(윤진, 1985에서 재인용). 이러한 유형들 가운데 성숙형, 은둔형, 무장형은 은퇴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반면 분노형, 자학형은 덜 긍정적인 적응 상태를 보인다. 이와같은 결과들은 은퇴후의 활동수준에 상관없이 성격에 따른 여러가지 성공적인 적응유형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이론을 근거로 하여 볼 때, 결국 은퇴후의 생활만족이란 개인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수

용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확실적인 적응유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퇴후의 적응은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3. 우리나라 노인들의 은퇴와 적응

우리나라 은퇴제도의 특성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정년연령이 빠르고 직급별 정년연령에 차이가 크며 연금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한 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장인협, 최성재, 1987).

이 광규(1977)에 의하면 실직이나 퇴직은 지적인 열등감, 의욕상실, 빠른 노화 현상등을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김 경숙(1981)의 연구에서도 인간이 일정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자존감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은퇴란 인간에게 두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퇴기인 55~65세는 봉급 생활자들이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시기로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일상 생활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자녀결혼과 분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다. 이 연령층의 노인들은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비축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거의 소비해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은퇴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생활의 빈곤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연금이 있어서 은퇴 당시의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해도 통화 팽창과 급속한 경제 성장의 영향을 받는다. 노인들은 따라서 낮은 소득을 지니는 사람들에 속하게 된다(김태현, 1984).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급격히 연장되고 있어, 1990년 현재 남자의 경우 67세이므로 55세에 은퇴하는 것은 평균수명 연장화 현상과 모순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 노년기의 생활을 해야하는 정서적, 심리적 부담 및 가정 생활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수성에서 남자들이 직장을 자신의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왔고, 심지어 취미·여가 생활마

저 직장에서 전념하는 문화유형에서 은퇴 한다는 것은 생애에 크나큰 전환이 아닐 수 없다.(장인협, 최성재, 1987).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조기정년, 은퇴에 대한 준비부족,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역할상실에서 기인되는 변화로 은퇴를 스트레스로 지각할 수 있다.

4.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모형

은퇴라는 생활사건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그에 따라 재적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Holmes와 Rahe(1967)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들의 사회적 스트레스 관점은 생활주기상에서 개인이 겪게되는 사건을 누구에게나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그것은 개개인의 독특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House, 1974). 즉, 지위나 역할의 구조적이고 객관적이며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인간 행동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했지만, 그러한 관점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Symbolic interactionist)은 좀 더 개인의 주관적인 통찰력과 사회 구조적인 관점의 균형을 이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House, 1974).

즉, 발생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개인이 지각하는 바와 상황적인 요인을 도입하여 사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Lowenthal, Thurner, & Chiriboga, 1975; George, 1980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사건의 영향은 각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므로 그러한 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 조건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때 스트레스의 지각이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은퇴함에 있어서 은퇴 이전의 직업에 만족했는가와 여부, 일로 인한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은퇴를 다르게 수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건이 다른 집단의 개인들에게 은퇴로 인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Social Stress Model)이라고 하며 House(1974)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George(1980)에 의해서 수정되었다.

이 모형에는 (1)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상황들 (2)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지각 (3)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4)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 (5) 이상의 4가지 요인들의 관계를 규정지어주는 개인의 성격과 선행 배경변인들을 포함한다(House, 1974).

이러한 모델은 노년기 생활에 있어 은퇴후 역할 전환 및 적응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은퇴는 일상적인 행동유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은퇴후 적응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재적응이 요구된다. 은퇴후의 스트레스는 수입의 감소로 인한 상실감, 일상생활의 변화, 가정 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 자아 정체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의미 있는 생활 경험의 감소를 포함하며 은퇴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좌우된다는 것이다(George, 1980).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정년제와 경제적 측면의 복지정책의 미비로 인하여 은퇴후의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은퇴후의 적응과 그에 따른 심리적 복지가 사회적 스트레스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George(1980)의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에 의하여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정도와 그에 따른 결과로서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B. 노인의 생활만족도

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노인들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생활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이점이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노화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생활만족도란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며 개인의 기대와 충족도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 개인적 현상으로(Medley, 1976)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 받는 바 크다(김명

자, 1982). Havighurst(1977)는 성공적인 노화를 성공적인 적응의 견지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활조건에 적응하므로 적응이 비교적 쉽고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 사회적 환경과 신체적 조건의 밀접한 조화(fit)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결국 노인의 생활 만족도란 노인이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조건속에서의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치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서, 자신의 과거,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갖는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C. 은퇴와 노인의 생활만족도

심리학에서 초기의 은퇴에 관한 문헌들은 은퇴를 위기로써 강조해 왔으나 최근의 연구는 인생의 주기에 있어 그것이 중요한 전환이 된다하더라도 인간의 생활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단지 은퇴의 시기나 유형 뿐만이 아니라 은퇴를 한 후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Hooyman & Kiyak, 1988). 은퇴 그 자체는 사회적 활동수준이나 생활만족도, 사기, 또는 자아 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한다(Palmore, Fillenbaum, & George, 1984). 그 보다는 은퇴에 있어서의 만족은 건강, 은퇴의 의사, 수입, 가족상황, 이전 직업, 일에 대한 가치, 일상 생활에 대한 지각들에 의존한다(Hooyman & Kiyak, 1988).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은퇴를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것과 그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갖고 있는 선행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많은 연구들이 제시해 놓은 개인의 성격을 포함한 배경변인들과 은퇴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1. 배경변인

(1) 직업 및 교육 수준

직업의 분류는 그 직업에 따른 특권 이외에도 교육 수준과 자율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각각의 특성은 은퇴 후의 스트레스와 연관된다고 한다(George, 1980).

직업상의 지위는 은퇴를 결정하는데 관련되며(Sheppard, 1976), 일에 대한 태도(Atchley, 1971), 은퇴후의 생활만족도 또는 적응에 관련된다(George & Maddox, 1977). 이러한 관계들의 유형은 상류층의 직업이 더 높은 수준의 일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은퇴후의 사회적 적응이 잘 이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George, 1980).

(2) 소득 및 주관적인 생활수준

은퇴후 적절한 수입의 획득 가능성은 은퇴 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중의 하나이다. 경제적 안정은 정서적, 사회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노후적응에 있어 필수적이고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업적 지위가 낮은 하류층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Sheppard, 1976).

Leon(1985)은 수입은 은퇴후 경제적인 복지를 유지하는데 활력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Fox(1977)는 은퇴자들의 낮은 생활만족도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3) 가족형태 및 배우자 유무

서구사회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생활만족도가 낮으나(Kivett & Learner, 1982)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노년기에는 자녀들과 동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이므로 서구사회와는 달리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일 경우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김태현, 1981 등).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사회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명자, 1982; 장상희, 1983).

특히 남자노인이 사회생활은 다양하지만 긴밀한 친구관계가 적고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이 드물어 배우자가 없을 경우 남자노인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건강

신체적인 안녕은 개인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때때로 건강상태는 은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Shanas, 1970). 은퇴자의 적응수준에 있어서의 차이

는 양호하지 못한 건강상태에서 부터 발견되며(Fox, 1977) 많은 연구들에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장상희, 1983; 최혜경, 1985).

한편, 은퇴가 나쁜 건강 상태를 초래하지는 않으며 은퇴자가 직업인들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다는 결과는 횡단적 연구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은퇴 이전의 상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Hooyman & Kiyak, 1988).

(5) 사회적 활동수준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Lemon과 그의 동료들(1972)은 노인이 행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노인의 은퇴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강조한다.

홍순혜(1984), 서병숙(1989) 등에 따르면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은퇴후의 적응이나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ull과 Aucoin(1975)은 활동수준을 파악할 때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성격, 심리적 안녕 상태, 건강, 경제 여건등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6) 내외통제성

성격은 개인의 일생을 통한 심리적 안녕과 행동의 지속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후의 적응과 성격을 관련시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개개인이 직업인에서 은퇴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퇴를 스트레스로 지각하여 환경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지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가를 알기 위해 성격을 측정하는 일은 중요하다(George, 1980).

Lazarus와 DeLongis(1983)에 의한 인지적인 평가(Cognitive appraisal)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것이다. 인지적인 평가는 사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건의 중요성이나 스트레스를 감소 또는 증가시킨다.

성격특성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sta & McCrae, 1980). 여러 가지 성격특성 가운데 내외통제성(Locus of Control)은

은퇴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외통제성은 일생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내적 통제) 또는 운명이나 외부적인 힘(외적 통제)에 의한 것으로 믿는 신념으로 Rotter(1966)에 의해서 척도가 개발되었다. 즉, 개인이 행동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내적통제, 외적통제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내적통제신념과 외적통제 신념은 명확히 구분된 것이 아니라 그 두 신념을 양극에 둔 연속선상에서 그 정도에 따라 변화, 발달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설인자, 1989).

노년기에 있어 은퇴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은퇴를 내적통제 또는 외적 통제신념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 혹은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가에 따라 은퇴의 스트레스는 차이가 날 것이므로 내외통제성은 은퇴후의 적응을 설명하는데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Crandall(1965)과 Lefcourt(1979)의 연구에서, 내외통제성이 노인의 노후적응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혀진바 있다(Suh, 1987에서 재인용). 내외통제성과 은퇴후 적응의 관계에서 Baker(1976), Kivett(1976)은 내적인 통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생활만족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자아정체감 유지 및 더 나은 적응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2. 은퇴변인

(1) 은퇴준비 프로그램에의 참가여부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은퇴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준비하는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Glamser, 1981). 그러나 Migliaccio와 Cairo(1981)의 연구에서는 은퇴 프로그램 참가의 효과와 은퇴 후 적응 사이의 관계는 일관적으로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하였다(Abel & Hayslip, 1987에서 재인용).

(2) 이전직업 만족도

직업에 잘 적응했던 사람은 다른 일에도 높은 수준의 적응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Goudy, Powers & Keith, 1975등) Johnson & Strouther

(1962)는 이전 직업 만족도와 은퇴에 대한 태도에는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George(1980)는 이전직업과 은퇴후의 적응은 경제상태, 건강, 사회활동 등의 부차적인 자원에 의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과에 따라 그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3) 은퇴시기

일반적으로 조기은퇴가 늦은 은퇴 보다 은퇴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almore et al., 1984).

Chatfield(1977)에 의하면 최근에 은퇴했거나 은퇴한지 12개월 미만인 사람의 생활 만족도는 은퇴하지 않은 사람보다 뚜렷하게 낮았으나, 은퇴한지 1년 이상된 사람과 은퇴하지 않은 사람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4) 은퇴전의 계획수립정도

은퇴후의건강유지, 취미생활이나 여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면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일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지지되고 있다(최성재, 1989; Glamser, 1976).

(5) 은퇴후의 생활비 준비

현재의 수입으로 은퇴후의 경제적 사정을 상당한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사정이 좋을수록 은퇴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 될 수 있으며(최성재, 1989) 이러한 관계는 여러 조사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McPherson & Guppy, 1979).

(6) 은퇴이유

많은 연구에서 강제은퇴는 임의은퇴보다 더욱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더우기 개인이 일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을때 강제은퇴는 매우 절망적인 것이 된다(George, 1980). 이런 상황에서 은퇴는 낮은 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된다(Kimmel, Price & Walker, 197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퇴한 노인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각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로 배경변인, 은퇴변인,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인과모형으로 구성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관련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노인들의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배경변인들에 따라서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배경변인들과 은퇴변인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은퇴변인들에 따라서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5. 배경변인들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6. 은퇴변인들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7. 배경변인, 은퇴변인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정도이며,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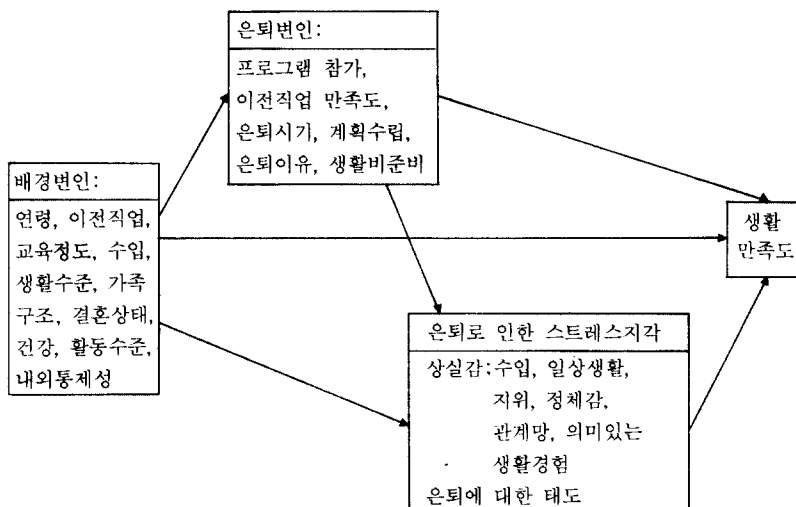
이상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IV.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선정된 연구대상은 전국의 은퇴한 남자노인으로서 은퇴후 전임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 하였다. 은퇴 이유별로 고르게 표집하기 위하여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으나, 강제 은퇴와 임의 은퇴에 부합되는 직업을 의도적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일반, 기술직, 교직), 사기업, 금융기관에 협조를 의뢰하여 퇴직·전출자 모임의 명단을 입수해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속 전직 일반, 기술직 공무원 모임, 전직 교직 공무원 모임, 철도청 소속 전직 기술직 공무원 모임, 신촌에 소재한 사립 대학교 정년퇴임 교원, 2개의 사기업, 2개의 은행의 퇴직·전출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는 내무부 및 지방자치 단체소속 전직 일반, 기술직 공무원 모임의



〈그림 1〉 가설적 인과 모형

시·도 지회를 통하여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무작위로 600명을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의 은퇴한 남자노인 140명, 지방의 121명으로 총 261명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63.8세였고, 은퇴전의 직업은 행정 관리직이 62.8%, 교육정도는 고졸이상이 7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이 공무원, 금융기관 및 사기업에서 정년 퇴직 했거나, 임의로 퇴직한 노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월평균 수입은 50~75만

원이 22.2%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조달방법은 국가연금 및 생활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29.9%였다.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69.3%가 보통 정도라고 응답하였고, 동거형태별로는 두 부부만 동거하는 경우가 4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건강 상태는 보통 이상이 92.0%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결혼 상태는 응답자 가운데 260명이 배우자가 있었고 1명만이 없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1)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연령	60세 이하	60 (23.0)	생활비 조달상태	일으해서 번다	69 (26.4)
	61-65세	111 (42.5)		퇴직금 활용	55 (21.1)
	66-70세	69 (26.5)		저축 인출	48 (18.4)
	71세 이상	21 (8.0)		재산 소득	61 (23.4)
	합 계	261 (100.0)		자녀에게 의존	46 (17.6)
이전직업	운수기능직	2 (0.8)	국가연금, 생활보조금	78 (29.9)	
	서비스직	8 (3.1)	합 계	357 (136.8)*	
	판매직	3 (1.1)	생활수준	아주잘산다	2 (0.8)
	일반사무원	48 (18.4)		잘사는 편이다	37 (14.2)
	행정관리직	164 (62.8)		보통 정도이다	181 (69.3)
	전문기술직	31 (11.9)		못사는 편이다	41 (15.7)
	기 타	5 (1.9)		아주 못산다	0 (0.0)
합 계	261 (100.0)	합 계	261 (100.0)		
교육정도	국 졸	17 (6.5)	동거형태	혼자산다	0 (0.0)
	중 졸	41 (15.8)		두부부만 동거	118 (45.2)
	고 졸	82 (31.5)		생존 부모님과 동거	25 (9.6)
	전문대졸(대학중퇴)	24 (8.2)		장남부부와 동거	40 (15.3)
	대 졸	76 (29.2)		장남의 아들부부와 동거	23 (8.8)
	대학원 이상	20 (7.7)		딸부부와 동거	4 (1.5)
	합 계	260 (100.0)		미혼자녀와 동거	96 (37.1)
월평균 수입	25만원미만	34 (13.0)	합 계	306 (117.5)*	
	25-50만원	46 (17.6)	건강	아주좋다	20 (7.7)
	50-75만원	58 (22.2)		좋은 편이다	78 (29.9)
	75-100만원	54 (20.7)		보통이다	142 (54.4)
	100-125만원	17 (6.5)		나쁜편이다	19 (7.3)
	125-150만원	17 (6.5)		아주나쁘다	2 (0.8)
	150-175만원	9 (3.4)		합 계	261 (100.0)
	175-200만원	9 (3.4)			
	200만원 이상	17 (6.5)			
	합 계	261 (100.0)			

* 중복 응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계는 100.0이 넘음

B.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 은퇴변인에 관한 문항,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총 68문항으로써 구성되어 있다.

1. 배경 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서 연령, 은퇴 이전의 직업, 교육정도, 월평균 수입, 생활비 조달상태, 생활수준, 가족구조, 결혼형태, 건강 상태 등의 변인을 포함시켰으며, 여기에서 생활수준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응답범주는 1점(아주 못산다)에서 5점(아주 잘산다)까지이다. 건강 상태는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인가의 질문에 1점(아주 나쁘다)에서 5점(아주 좋다)까지의 응답범주를 제시 하였다.

(2) 사회적 활동수준

연구대상자의 활동수준은 홍순혜(1984), Lemon 등(1972)의 연구를 근거로 한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공식적인 활동(친척, 친구, 이웃과의 만남) 및 공식적인 조직(정치, 종교, 친목, 취미단체 등)에의 참여, 봉사, 노인정, 노인대학에 참가, 그리고 혼자하는 취미생활의 빈도를 1점(전혀 없다)에서 7점(거의 매일) 사이의 점수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6~4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수준이 높은 것을 뜻한다.

(3) 내외통제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외통제성 척도는 Rotter가 1966년에 제작한 Internal-External Scale을 발췌 변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는 2개의 응답 즉, 내적통제 문항과 외적통제 문항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이 때 내적통제 문항에 표시 했을때 1점씩 가산하여, 0점(가장 외적

통제)에서 15점(가장 내적통제)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KR-20계수(Kuder-Richardson-20)로 측정된 신뢰도는 .60이다.

2. 은퇴변인

은퇴변인들로서 은퇴 이전에 준비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점,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하였다. 은퇴 이전의 직업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는 응답범주는 1점(아주 만족스러웠다)에서 5점(아주 불만족스러웠다)까지이며, 은퇴한 후 경과된 기간을 묻는 문항은 개월수로 측정하였다. 은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취미생활, 건강유지, 여가) 계획이 어느정도 확실한가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확실성 정도에 따라 5가지로 나누고 1점(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에서 5점(확실한 계획을 세웠다)을 부여해서 측정하였다. 은퇴전에 준비한 생활비로 노후 생활을 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가의 질문에 대해 5개의 응답항목을 설정하고 1점(전혀 생활을 할 수 없다)에서 5점(충분하다)을 부여하였고, 은퇴한 이유는 정년퇴직, 건강,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한, 권고사직에 의한, 기타로써 5가지의 응답항목을 설정하였다.

3.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노인의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종숙(1987), 최성재(1989) 및 George(1980)의 연구를 근거로 기초문항을 작성한 후 은퇴자들에게 실제 은퇴후에 느끼는 스트레스와 관련되는지를 면담하여 수입의 상실감, 일상생활의 변화, 가정 및 사회적 지위의 하락, 자아정체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의미있는 생활경험의 상실, 은퇴에 관한 태도에 관한 15개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응답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형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문항을 포함하여 23~67점까지 이고 점수가 많을수록 은퇴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다. Cronbach's α 계수로 측정된 신뢰도는 .86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 측정에는 윤진(1982)의 노인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부문의 8개 문항(긍정적 부문 4개, 부정적 부문 4개), 경험부문의 12개 문항(긍정적 부문 6개, 부정적 부문 6개) 등 모두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2점(동의한다), 1점(그저 그렇다), 0점(동의하지 않는다) 등 3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형 3점 척도로서 점수는 긍정적 부문의 총점에서 부정적 부문의 총점을 뺀 것이다. 즉, "생활만족도 = (긍정적 감정 부문 - 부정적 감정 부문) + (긍정적 경험부문 - 부정적 경험부문)"으로 구해진다. 생활만족도 점수의 범위는 -20~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Cronbach's α 계수로 측정된 신뢰도는 .90이다.

C. 자료의 수집절차 및 분석

예비조사는 서울에 제한하여 1990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은퇴후 전임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직접 면접을 하였다.

본 조사는 1990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질문지, 회신용 봉투, 그리고 우표를 우편으로 보내어 응답을 기입하게 하는 우송조사법(mail survey)으로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에 261부의(서울 140부, 지방 121부) 질문지를 사용하여 응답률은 43.5% 였고, 이러한 비율은 우송조사법에 의한 자료 수집으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용치, 1989)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 연구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를 위해서 Chi 검정, t-test, 일원변량 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분석, 단계별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문제들의 유의도는 $P=.05$ 이하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V. 결과 및 해석

A.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정도

〈연구문제 1〉 우리나라 노인들의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정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대상자들이 은퇴에 대해서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문항 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각 문항은 1~5점 사이의 범위를 갖는다.

〈표 2〉에서, 우리나라의 남자노인들은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 문항들의 전체 평균이 2.97로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이가운데 은퇴에 대한 태도면에서 은퇴후에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부

〈표 2〉 연구대상자들의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점수 (N=261)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은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2	1.38
2. 앞으로의 경제적인 상황이 염려된다.	3.13	1.38
3. 할 일이 없어 시간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77	1.46
4. 수면, 식욕, 성욕 등 일상생활의 곤란을 느낀다.	2.44	1.13
5. 은퇴후에 가족내의 지위가 약화되었다고 느낀다.	2.39	1.29
6. 은퇴후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줄었다고 생각한다.	3.45	1.27
7. 때때로 내 자신이 능력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94	1.34
8.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것이 상실감으로 느껴진다.	3.13	1.33
9. 은퇴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2.77	1.33
10. 은퇴후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할일이 적어졌다.	3.46	1.28
11. 은퇴후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느낀다.	3.21	1.38
12. 요즘 여가생활이나 새로운 관심 거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2.87	1.38
13. 은퇴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2.84	1.35
14. 은퇴란 사회나 개인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이다.	2.76	1.34
15. 은퇴라는 것을 생각하면 뭔가 불안해진다.	3.48	1.31
합계(전체의 합산평균 및 표준편차)	44.54	11.68

정적인 감정을 가짐으로써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문항중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연구와 상반되는 것이나, 최성재(1989)의 퇴직에 대한 태도 연구와 일치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년연령이 상당히 낮은데다가 노후의 경제적 보장책도 미비한 점이 반영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은퇴자들은 은퇴후 이웃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이 좁아졌다고 지각하며, 사회적인 지위가 하락한 것, 사기저하, 경제 상황 염려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고, 반면 가족내의 지위변동, 일상생활에서는 스트레스의 지각 수준이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은퇴와 노화의 결과로 지위와 권위의 기초가 되었고 사회참가의 길이 되었던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장상희, 1983) 사회적 관계망이나 지위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고 볼수 있다.

B. 연구대상자들의 내외 통제성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인 통제의 점수 평균은 9.02로써 (SD=2.72, N=261) 척도 점수가 최고점의 절반인 7.5가 되면 중립적인 성격이므로 9.02는 비교적 내적인 통제 신념의 위치에 속해 있는 점수이다. 즉,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남자노인의 성격은 통제의 소재를 비교적 내부 (자신)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배경변인과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

〈연구문제 2〉 배경변인에 따라서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은 연령, 수입, 생활수준 그리고 건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연령이 60세 이하인 집단과 60~65세, 65~70세인 집단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

〈표 3〉 배경변인들에 따른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의 차이

독립변인	분 류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N	평균	표준편차	F	grouping
연령	60세 이하	60	45.30	11.53	3.57*	A
	61-65세	111	46.43	11.56		A
	66-70세	69	42.60	11.65		A
	71세 이상	21	38.61	10.70		B
직업	상	139	41.69	11.62	2.93	A
	중	92	47.52	10.86		A B
	하	30	48.67	11.24		B
교육정도	상	58	44.40	10.97	2.88	A
	중	106	46.40	12.38		A B
	하	96	42.48	11.05		B
수입	상	80	48.38	12.00	7.43***	A
	중	112	43.81	11.12		B
	하	69	41.33	11.14		B
생활수준	상	39	38.72	15.39	23.00***	A
	중	181	43.59	11.16		B
	하	41	54.27	9.72		C
건강	좋다	98	41.28	10.96	6.43**	A
	보통이다	142	46.51	11.59		B
	나쁘다	21	46.71	12.65		B

* P<.05 ** P<.01 *** P<.001

나 70세 이상인 집단과 70세 이하의 집단은 차이가 있어 70세까지는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였다. 수입은 상류층과 중류층·하류층의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세 집단중에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순서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였다. 즉,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Fox (1977)의 연구와 일치한다. 건강상태는 좋은 집단과 보통 정도이거나 나쁜 경우인 집단간에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결과는 Fox (1977) 및 George (198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에는 각각 상류층 집단과 하류층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상류층과 중류층, 중류층과 하류층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t-test에서 스트레스 지

각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활동수준 및 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 지각의 상관관계를 보면 활동수준($r=-.23, P<.001$)과 내외통제성($r=-.13, P<.05$) 모두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활동수준이 낮을수록, 내적 통제점수가 낮을수록 은퇴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D. 배경변인과 은퇴변인의 관계

〈연구문제 3〉 배경변인들과 은퇴변인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직업, 교육, 수입, 생활수준, 건강상태와 은퇴 프로그램 참가여부, 은퇴전의 계획 수립정도, 생활비 준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검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직업, 교육, 수입, 생활수준, 건강과 은퇴 프로그램 참가, 계획수립, 노후 생활비 준비와는 아무런 관계

〈표 4〉 은퇴 변인들에 따른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차이

독립변인	분 류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N	평균	표준편차	F	grouping
이전 직업의 만족도	만 족	138	41.69	11.62	9.52***	A
	보통정도	91	47.52	10.86		A
	불만족	30	48.67	11.24		B
은퇴기간	5년이하	105	43.20	11.04	1.68	A
	6-10년	88	46.27	11.81		A
	11년이상	66	44.39	12.38		A
은퇴후 계획	확실한 계획	20	37.35	14.39	6.30***	A
	대체적인 계획	50	39.70	11.15		A
	막연한 정도	113	45.79	10.61		B
	거의 생각지않음	21	47.67	11.09		B
	전혀 생각못함	20	47.82	11.75		B
은퇴후 생활비 준비	충분하다	56	37.23	9.10	13.19***	A
	약간 모자란다	92	43.74	11.11		B
	상당히 모자란다	40	47.76	10.38		B
	많이 모자란다	51	51.78	10.75		B C
	전혀 생활못함	20	44.50	13.81		C
은퇴이유	정년퇴직	145	44.56	11.24	1.58	A
	건강상의 이유	13	45.23	12.95		A
	다른일을 시작	34	41.85	11.91		A
	권고사직	39	48.08	11.11		A
	기 타	28	42.50	13.33		A

*** P<.001

가 나타나지 않았다.

E. 은퇴변인과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

〈연구문제 4〉 은퇴변인들에 따라서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은 이런 직업의 만족도, 은퇴후의 계획, 그리고 은퇴후 생활비 준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직업의 만족도가 보통정도 이상의 집단과 불만족한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고, 은퇴후 계획을 대체적인 수준이상으로 세운 집단과 막연한 정도. 거의 생각하지 못했거나 거의 세우지 않은 집단간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비 준비에 따라서는 충분한 경우와 약간 모자람. 상당히 모자람. 많이 모자람 그리고 전혀 생활을 못하는 경우의 세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약간 모자람. 상당히 모자람. 많이 모자람의 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고, 많이 모자람의 집단과 전혀 생

활을 할 수 없는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은퇴기간과 은퇴 이유에 의한 스트레스 지각은 은퇴한후 5~10년 사이, 그리고 권고사직에 의하여 은퇴한 경우가 가장 스트레스 점수상으로 높았으나, 각 집단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은퇴 프로그램의 참가여부에 따라서는 Chi검증을 실시한 결과,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 배경변인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문제 5〉 배경변인들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표 5〉에서 보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생활수준과 건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생활수준이 높다고 지각하는 집단과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순서대로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와 (최혜경, 1985등) 일치하는 것이다. 연령, 이전직업, 교육정도,

〈표 5〉 배경변인들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차이

독립변인	분 류	생활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grouping
연 령	60세 이하	60	0.69	7.38	1.76	A
	61-65세	111	1.28	8.40		A
	66-70세	69	1.06	8.62		A
	71세 이상	21	5.35	7.25		B
직 업	상	60	-0.27	8.38	2.09	A
	중	158	1.67	7.91		A B
	하	35	3.09	8.85		B
교육정도	상	57	1.97	8.46	2.61	A
	중	102	0.02	8.47		A
	하	93	2.60	7.58		A
수 입	상	76	-0.28	8.47	2.97	A
	중	109	1.59	7.41		A B
	하	68	3.00	8.80		B
생활수준	상	39	5.08	8.46	11.24***	A
	중	174	1.65	7.63		B
	하	40	-3.23	8.32		C
건 강	좋다	96	4.39	8.10	14.31***	A
	보통이다	136	0.18	7.52		B
	나쁘다	21	-4.29	7.98		C

*** P<.001

수입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t-test한 결과, 핵가족인 경우가 확대가족인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활동수준 및 내외통제 성격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활동수준과 내외통제성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나, 내외통제성 ($r=.20, P<.01$)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 즉, 내적 통제점수가 높을때 생활만족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G. 은퇴변인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문제 6〉 은퇴변인들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은퇴변인들 가운데 이전 직업의 만족도, 은퇴한 기간, 은퇴후에 대한 계획수립, 노후생활비 준비에 따

라 차이가 났고, 은퇴한 이유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전 직업의 만족도에서 만족했던 집단과 보통정도였거나 불만족했던 집단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만족했던 집단의 생활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업에 잘 적응했던 사람이 다른분야에도 잘 적응한다는 Goudy등 (1975)의 연구와 유사하다. 은퇴한 기간에 따라서는 5년이하와 10년 이상된 집단은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없고 5~10년된 집단과 차이가 났는데 이는 은퇴한지 5년 이하의 집단은 직업에서 물러나서 어느 정도 다른 생활에 대해 적응하려고 하는 단계이고, 또한 10년 이상이 되면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적용된 상태이므로 생활만족도에 일관성을 보이거나 5~10년 사이의 집단은 은퇴후의 현실을 지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시기이므로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Atchley (1977)가 제시한 은퇴의 단

〈표 6〉 은퇴 변인들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차이

독립변인	분 류	생 활 만 족 도				
		N	평균	표준편차	F	grouping
이전 직업의 만족도	만 족	136	3.43	7.97	10.27***	A
	보통정도	88	-0.46	7.68		B
	불만족	29	-2.41	8.25		B
은퇴기간	5년이하	103	2.56	7.78	4.43*	A
	6-10년	87	-0.68	8.00		B
	11년이상	63	2.40	8.65		A
은퇴후 계획	확실한 계획	20	6.80	9.25	7.02***	A
	대체적인 계획	51	5.02	7.83		A
	막연한 정도	114	0.14	7.54		B
	거의 생각지않음	55	-0.96	7.53		B
	전혀 생각못함	21	0.60	8.58		B
은퇴후 생활비준비	충분하다	56	4.45	8.06	8.48***	A
	약간 모자란다	93	2.03	6.93		A B
	상당히 모자란다	40	0.13	7.82		B
	많이 모자란다	52	-3.48	8.17		C
	전혀 생활못함	20	4.75	8.95		A
은퇴이유	정년퇴직	147	2.09	8.00	1.89	A
	건강상의 이유	13	1.33	9.62		A
	다른일을 시작	34	2.44	8.16		A
	권고사직	39	-1.81	7.90		A
	기 타	28	1.11	8.41		A

* P<.05 *** P<.001

계중 은퇴직후의 생활에 도취되는 시기인 허니문 단계, 이후 절망을 느끼는 환멸단계, 그 다음으로 안정이 되는 재지향 및 인정단계의 타당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후 계획수립 정도에서, 확실한 계획, 대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집단과, 막연하거나, 거의 또는 전혀 세우지 못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성재 (1989), Glamser (197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은퇴후 생활비의 준비에 다른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충분한 집단, 전혀 생활을 못할 정도인 집단과 상당히 모자라는 집단 및 많이 모자라는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약간 모자라는 집단. 상당히 모자라는 집단사이, 그리고 충분한 집단. 약간 모자라는 집단. 전혀 생활을 못할 정도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전통적인 가족 부양에 의한 가치관을 가졌을 경우 자녀에 의존하게 되므로 생활만족도가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은퇴 이유에서는 다른일을 시작하기 위한 임의 은퇴인 경우 생활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고 권고사직에

의하여 은퇴한 경우의 점수가 가장 낮으며, 이러한 결과는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와 동일한 경우에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외 다른 이유로 은퇴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은퇴 프로그램에의 참가여부와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Chi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H. 인과모형의 검증

<연구문제 7> 배경변인, 은퇴변인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정도이며,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7의 검증을 위하여 변인들간의 pearson의 상관관계를 기본적으로 살펴본 결과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순환 (recursive) 경로 모형에 의해서 경로분석을 하였다. 각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직접적인 효과는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보았다. 각 변인간의 경로 계수는 β (beta) 계수를 사

<표 7> 변인들간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평균, 표준편차

(N=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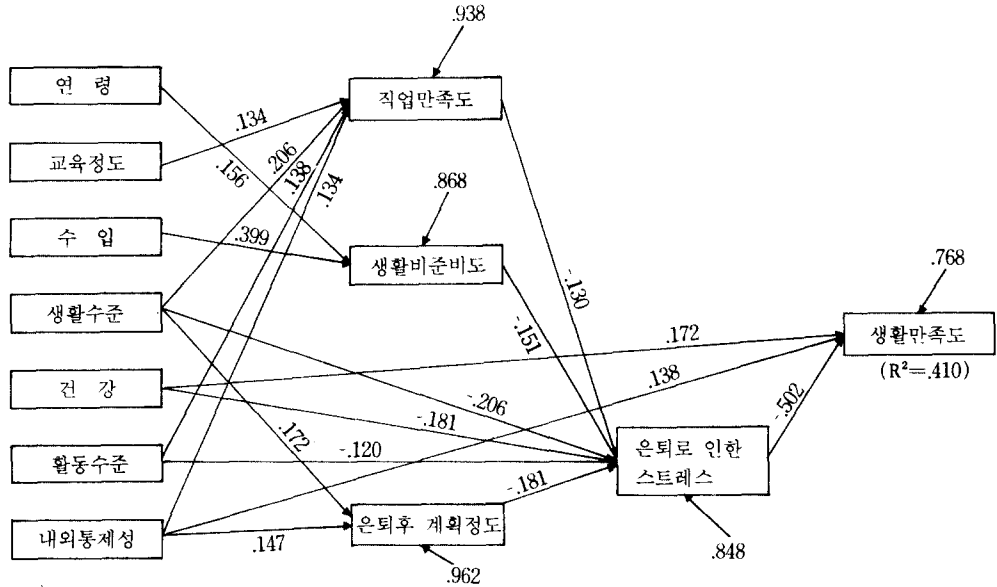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연령	-													
2. 직업	.072	-												
3. 교육정도	-.208	.208	-											
4. 수입	-.235	.059	.324	-										
5. 생활수준	-.022	.043	.247	.466	-									
6. 건강	.006	.060	.179	.145	.114	-								
7. 활동수준	.170	.078	-.164	-.037	.027	.056	-							
8. 내외통제성	.096	.033	-.017	-.069	.034	.080	.128	-						
9. 직업만족도	.111	.053	.154	.166	.250	.157	.138	.170	-					
10. 은퇴기간	.380	-.060	-.291	-.274	.114	-.059	.077	-.051	-.120	-				
11. 생활비준비	-.052	.020	-.045	.128	.190	.145	-.004	.163	.196	-.127	-			
12. 은퇴후계획	.058	.101	.199	.432	.307	.081	.120	.063	.285	-.275	.175	-		
13. 은퇴스트레스	.080	-.124	-.154	-.229	-.344	-.270	-.171	-.094	-.305	.070	-.298	-.313	-	
14. 생활만족도	.088	.090	.099	.210	.293	.326	.098	.196	.287	.196	.263	.196	-.592	-
평균	63.828	6.829	5.619	3.800	3.000	2.636	22.900	9.020	2.456	89.096	3.023	2.567	44.544	1.407
표준편차	4.905	0.930	1.413	2.212	0.575	0.760	4.887	2.715	0.910	65.489	1.020	1.240	11.685	8.188

* P<.05 ** P<.01 *** P<.001

용하였고 0.05 수준에서 지지받지 못한 경로계수는 기각되었으며, 그 경로 또한 인과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인과모형을 위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8>은 인과모형에서 사용된 변인들간의 회귀분석표이며 여기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경로만으로 인과모형을 구성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따라서 연구문제 7을 검증하면 다음과



<그림 2>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 그림의 외부 화살표시는 잔차효과(residual path coefficients)로서 $\sqrt{1-R^2}$ 로 계산한다.

<표 8> 모델에서 변인들간의 회귀 분석표

(N=261)

독립변인	종속 변인				
	생활만족도	은퇴스트레스	직업만족도	생활비준비	은퇴후 계획
연령				.039(.156)**	
교육정도			.086(.134)*		
수입				.223(.399)***	
생활수준		-4.070(-.206)***	.324(.206)***		.305(.172)**
건강	1.832(.172)***	-2.701(-.181)***			
활동수준		-2.78(-.120)*	.026(.138)*		
내외통제성	.411(.138)**		.044(.134)**		.055(.147)*
직업만족도		-1.621(-.130)**			
생활비준비		-1.385(-.151)***			
은퇴후 계획정도		-2.010(-.181)***			
은퇴 스트레스					
Constant	3.834	89.456	-.280	-1.700	1.051
R²	.410	.281	.121	.246	.073

* P<.05 ** P<.01 *** P<.001

+ ()안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이다.

같다.

(1) 은퇴변인들에 대한 배경변인들의 영향력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교육정도와 생활수준 및 활동수준, 내외통제성격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12.1%이다. 즉,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내적통제 신념이 강할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았다. 영향력의 크기면에서는 생활수준이 ($\beta=.206$)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생활비 준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연령과 수입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24.6%이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생활비 준비가 충분한 것을 말하며 수입의 영향력이($\beta=.399$) 큰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은퇴후 계획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생활수준, 내외통제성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7.3%이다. 즉,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은퇴후의 취미생활, 건강유지, 여가등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 정도가 높았고, 내적통제 성격일수록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두려는 신념을 갖기 때문에 은퇴후에 대해서도 은퇴이전에 계획을 세우는 정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2)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배경변인들과 은퇴변인들의 영향력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생활수준, 건강, 활동수준, 직업만족도, 생활비 준비, 그리고 은퇴후 계획수립 등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28.1%이다. 즉, 노인의 배경변인들로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나쁠수록, 활동수준이 낮을수록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하며 이는 각각 홍순혜(1984), Lemon et al. (1972), Fox (197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은퇴변인들로서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생활비 준비도가 낮을수록, 은퇴후 계획의 수립정도가 낮을수록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각각 최성재(1989)의 연구와 Glamser (1976) 및 Monahan et al. (198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여기에서 은퇴후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생활수준으로서 ($\beta=-.206$), 노년기에 있어서의 가장 빈번하고 공통적인 불안의 대상은 경제적인 사정임을 지적해주고 있으며(한국 껀립조사 연구소, 1984), 이러한 현상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은퇴후의 경제적 사정이 은퇴생활에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한편, 배경변인으로서 연령과 수입은 생활비 준비를 통해서, 교육정도는 직업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또한 내외통제성은 직업만족도와 은퇴후 계획수립을 통해서 간접효과만을 미치며, 생활수준과 활동수준은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자기 직업만족도나 은퇴후 계획정도를 매개로 해서 은퇴후에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 은퇴변인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의 영향력

노인의 생활만족도에서 건강과 내외통제성, 그리고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설명력은 41.0%로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건강이 좋을수록, 내적 통제신념이 강할수록 그리고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하여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의 성격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고 특히 은퇴라는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와 관련지은 연구가 미흡했었던 점을 볼때 매우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인간의 생활만족도란 그 시점에서 주어진 환경들, 예를들어, 경제조건,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인 환경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나, 그러한 상황을 수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 반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격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는 내외통제성을 살펴보았을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내적 통제신념이 강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이와같은 결과는 Baker (1976), Kivett (1976)의 연구와 일치하며, 내적 통제신념이 강할 때 은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일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중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beta = -.502$), 이는 우리나라 남자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은퇴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단계별 회귀분석에 의해서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들, 즉, 건강, 내외통제성,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의 부분적인 설명력들을 <표 9>에서 보면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체 설명력인 41.0% 가운데 35.1%를 차지함으로써 그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beta = -.502$).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던 연령, 교육정도, 수입, 생활수준, 활동수준 등의 변인들이, 본 연구에서는 은퇴 변인들이나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또는 두가지 모

두를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구체적인 관계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은퇴변인들인 직업만족도, 생활비준비, 은퇴후 계획수립 등도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으나 그것들로 인한 스트레스의 지각정도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각 .065, .091, .076).

건강과 내외통제성은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각각 $\beta = .172, .138$) 은퇴 변인과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각각 .091, .022)

이러한 현상들은 먼저 우리나라 남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은퇴라는 사건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beta = -.502$), 발생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개인이 지각하는 바와 이미 갖고 있었던 배경 변인들을 도입하여 각 개인에게 다르게 전달되는 사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에게 발생된 사건은 인생주기상 과정으로서의 은퇴였으므로 은퇴변인들을 포함시켰으며 이들 역시 선행 조건으로써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적응결과로서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은퇴는 우리나라 남자노인들에게 있어서 조기 정년제, 경제적 측면의 복지 정책미비와 현재 노

<표 9>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생활 만족도				
단계	독립변인	B	β	Partial R ²
1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363**	-.502***	
2	건강	1.832***	.172	.031
3	내외통제성	.411**	.138	.019
4	생활수준	1.380***	.098	.009
	R ²			.410

** P<.01 *** P<.001

<표 10>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과 인과적·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

변인	총체적관계 A	인과적효과			비인과적효과 A-D
		직접효과 B	간접효과 C	전체효과 D=(B+C)	
연령	.088	.	.012	.012	.072
교육정도	.099	.	.009	.009	.090
수입	.210	.	.030	.030	.180
생활수준	.293	.	.132	.132	.162
건강	.326	.172	.091	.263	.063
활동수준	.098	.	.069	.069	.029
내외통제성	.196	.138	.022	.160	.036
직업만족도	.287	.	.065	.065	.222
생활비준비	.196	.	.091	.091	.105
은퇴후계획정도	.263	.	.076	.076	.187
은퇴 스트레스	-.592	-.502	.	-.502	-.090

총체적 관계는 단순 상관계수(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임.

인세대의 노후 생활 대책에 관한 인식부족등에 의하여 전통적인 사회적 스트레스 관점에서 볼 때 사회 구조적으로 생활만족도 감소에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함께 상호작용론적인 관점에서, 개개인의 배경들에 따라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인과관계로서 나타난 점을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VI.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은퇴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심리적 인 복지향상에 목적을 두고 노인의 배경변인, 은퇴 변인,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 그리고 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인과모형으로 구성하여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의 은퇴한 노인 261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은퇴한 노인들은 은퇴에 대하여 상당히 불안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은퇴후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이 좁아지는 것과 사회적 지위의 하락, 사기저하, 수입의 상실감으로 부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노인들은 은퇴후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생활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외적인 통제신념을 가질수록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고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셋째, 은퇴와 관련하여 볼 때, 이전직업에 덜 만족하고 은퇴후의 생활 및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을때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고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네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내적인 통제성격이 강할수록, 그리고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낮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며 이들 변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세 변수중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정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 교육정도, 수입, 생활수준, 활동수준은 은퇴변인이나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지각을 통해서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직업만족도, 생활비 준비, 은퇴후 계획정도는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내외통제성과 건강상태는 은퇴변인들과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을 통제하면 노인의 배경변인들 및 은퇴변인들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약화 또는 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의 배경변인, 은퇴 변인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정도와 생활만족도를 관련지어 세운 인과모형은 자료의 분석결과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남자노인들은 먼저, 직업이나 교육정도, 은퇴한 후 경과된 기간, 그리고 은퇴하게 된 이유와는 상관없이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으며, 생활수준과 건강에 의해서 스트레스 지각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은퇴후의 생활적응에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상태가 중요한 선행조건이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은퇴후에 무엇을 할것인가의 생활에 대한 계획과 준비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각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점은 은퇴이전의 계획수립이 노후 생활 적응에 있어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감소 시킴으로서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은퇴후의 경제적인 보장의 정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은퇴후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은퇴후의 경제 생활이나 여가등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사회화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복지 정책의 조속한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이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인의 성격측면을 거의 다루지 못하였던 제한점을 해결해 보고자 내외통제성의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그결과, 내적인 통제신념이 강할수록 이전직업에 더 만족하며 은퇴후의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따라서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고 생활에 더 만족하며 이는 매우 특기할 만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남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은퇴를 스트레스로 지각한다는 개념을 관련지어 인과모형으로 구성해 본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여러변인들중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것을 매개 변인중의 하나로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아울러 노인들의 은퇴이전에 이미 지니고 있었던 선행조건들이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어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개인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떤 사건을 다르게 지각하여 이에 따른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며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자노인들은 서구사회의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은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은퇴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여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 일과 성취에 우선을 두는 사회화 과정을 겪어왔고, 그들 세대의 가치관에 따라 은퇴후의 적응에 관한 인식 및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아 조기정년제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은퇴준비를 위한 서비스,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을 촉진시키는 각종 프로그램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은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은퇴후의 생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은퇴에서 기인되는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후 생활에 대한 개인의 물리적·정신적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정년연령 연장 및 연금제도 확대 실시등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은 은퇴한 노인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것으로는 대표성이 있으나, 은퇴라는 사건을 겪은 노인을 무작위로 표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표본선정 최종단계에서는 정년퇴직 연령이 제도화 되어 있는 일반, 기술직, 교직공무원, 사기업, 금융기관에서 퇴직 또는 전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직업적 분포가 고르지 못했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 집단 효과 (cohort effect)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노화를 하나의 사회적 과정 혹은 인간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인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변수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역사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은퇴후의 생활적응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정 과정에서 연구대상의 은퇴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노후 생활적응에 대해 은퇴에 의한 스트레스 지각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은퇴한 후 기간이 지나치게 경과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의미가 축소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은퇴자의 배경변인 및 생활만족도와, 은퇴직후에 은퇴로 인해서 변화된 배경변인과 생활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적 종단적 연구방법 (Segmented Longitudinal study)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영애, "한국의 정년제와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2) 김경숙, "도시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대책에 관한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3) 김명자,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1982, pp. 45~54.
- 4) 김성순,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 5) 김종숙,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 6) 김태현,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1.
- 7) ———, "은퇴에 대한 가족관계학적 고찰," 성신연구논문집, 19, 1984, pp. 471~491.

- 8) 민재성, "정년제와 소득 보장 대책,"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대한 노인회, 한국노년학회, 1982.
- 9) 박용치, 현대 사회과학 방법론, 서울: 고려원, 1989.
- 10) 서병숙, "노후 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 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2), 1989, pp. 133~148.
- 11) 설인자, "사회적 지지와 내의 통제성에 따른 성공공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12) 윤종주,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성장추이 및 전망," 한국노년학, 8, 1988, pp. 7~18.
- 13) 윤진,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 14) 이광규, "근대 사회와 노인문제," 사목, 51, 1977.
- 15) 장상희,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조사연구, 2(1), 1983, pp. 49~64.
- 16)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17) 최성재, "퇴직 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후 생활 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1989, pp. 47~65.
- 18) 최신타·김종숙 편역, 노인과 사회, 서울: 고시연구사, 1983.
- 19) 최혜경,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5.
- 20)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1984.
- 21) 홍순혜,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2) Abel, B.J. & Hayslip, B., "Locus of Control and Retirement Prepar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2(2), 1987, pp. 165~167.
- 23) Atchley, R.C., "Retirement and Work Orientation," *The Gerontologist*, 11, Spring, 1971, pp. 29~32.
- 24) ———,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2nd ed., Wadsworth Publishing Com. Inc., 1977.
- 25) Baker, E. K., "Relationship of Retirement and Satisfaction with Life events to Locus of Contr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9B), 4748, 1976.
- 26) Bull, C.N. & Accoin, J.B.,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 Replication Note," *Journal of Gerontology*, 30(1), 1975, pp. 73~76.
- 27) Chatfield, W.F.,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2(5), 1977, pp. 593~599.
- 28) Costa, P.T. & McCrae, R.R., "Contribution of Personality Research to an Understanding of Stress and Aging," in H.I. McCubbin, M.B. Sussman, & J.M. Patterson, (eds.), *Social Stress and Family*, New York: The Haworth Press, 1983, pp. 157~174.
- 29) Cowgill, D.O., *Aging Around the World*, Wadsworth Publishing Com. Inc., 1986.
- 30) Cumming, E. & Henry, W. E., *Growing Old*, Arno Press Inc., 1961.
- 31) Dowd, J.J.,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5), 1975, pp. 584~594.
- 32) Fox, J. H., "Effects of Retirement and Former Work Life on Women's Adapta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32(2), 1977, pp. 196~202.
- 33) George, L.K., & Maddox, G.L., "Subjective Adaptation to Loss of the Work Rol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orontology*, 32(4), 1977, pp. 456~462.
- 34) George, L.K., *Role Transitions in later Lif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80.
- 35) Glamser, F.D., "Determinants of a Positive Attitudes toward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1(21), 1976, pp. 104~107.
- 36) ———, "The Impact of Preretirement Programs on the Retirement Experience," *Journal of Gerontology*, 36(2), 1981, pp. 214~250
- 37) Goudy, W. J., Powers, E.A., & Keith, P., "Work and Retirement: A Test of Attitudinal Relationsh-

- ip," *Journal of Gerontology*, 30(2), 1975, pp. 193~198.
- 38) Havighurst, R.J.,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The Gerontologist*, 8, Spring 1968, pp. 20~33.
- 39) ———, "Personal and Patterns of Aging", in J. R. Barry & C.R. Wingrove(eds.), *Let's Learn about Aging: A Book of Readings*, New York: Schenkman Publishing Com. Inc., 1977.
- 40) Hooymann, N.R., & Kiyak, H., *Social Gerontology —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Allyn and Bacon Inc., 1988.
- 41) House, J.S., "Occupational Stress and Coronary Heart Disease: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5, March, 1974, pp. 12~27.
- 42) Johnson, L. & Strouther, G.B., "Job Expectatins and Retirement Planing," *Journal of Gerontology*, 17, 1962, pp. 418~423.
- 43) Kimmel, D.C., Price, K.F., & Walker, J.W., "Retirement Choice and Retirement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3(4), 1978, pp. 575~585.
- 44) Kivett, V.A.,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redictors of Locus of Control among Middle Aged Adul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5B), 2481, 1976.
- 45) Kivett, V.A. & Learner, R. M., "Situational Influences on the Morale of Older Rural Adults in Child-Shared Housing: A Comparative Housing: A Comparative Analysis," *The Gerontologist*, 22, Spring, 1982, pp. 100~106.
- 46) Lazarus, R.S. & Delongis, A., "A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ist*, 38, March, 1983, pp. 245~254.
- 47) Lemon, B. W., Bengtson, V.L., & Peterson, J.A., "An Exploration of the Ativity Thero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tology*, 27(4), 1972, pp. 511~523.
- 48) Leon, J., "A Recursive Model of Economic Welo-
bieng in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40(4), 1985, pp. 494~505.
- 49) Maddox, G.L., "Adapta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 Spring, 1970, pp. 14~18.
- 50) McPherson, B., & Guppy, N.,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 1979, pp. 254~263.
- 51) Medley, M.L.,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1976, pp. 448~454.
- 52) Monahan, D.J. & Greene, V.L., "Predictors of Early Retirement Among University Faculty," *The Gerontologist*, 27, Spring, 1987, pp. 46~52.
- 53) Palmore, E., Fillenbaum, G., & George, L., "Consequences of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9(1), 1984, pp. 109~116.
- 54) Rotter, J.B., "Genre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609, 1966.
- 55) Shanas, E., "Health and Adjustment in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 Spring, 1970, pp. 19~20.
- 56) Sheppard, H.L., "Work and Retirement," in R.H.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 1976.
- 57) Stevens-Long, J., *Adult Life*, 2nd ed., Mayfield Publishing Com., 1984.
- 58) suh, H., "The Relationship Among Life Satisfaction, Locus of control and Death Anxiety As Perceived By Korean And American Older Adults Using Selected Personal Demographic Variables," Ph.D.,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7.
- 59) Taylor, C., "Developmental Conceptions and the Retirement Process," in F.M. Carp(ed.), *Retire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Inc., 1972.
- 60) Troll, Miller, & Atchley, *Famillies in Later Life*, Wadsworth Publishing Com. Inc., 1979.